
2020년 제28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7. 3. ~ 7. 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7. 3.	시청률	0.041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는 '단박톡'에서 검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지난 73회에서 76회까지 위기의 한반도, 검색된 남북관계를 되돌릴 방안을 전문가로부터 진단해보는 기획을 마련해 시선을 집중시킨 점이 탁월했다.

제76회 '위기의 남북관계, 역사의 순간을 통해 해답을 찾다!'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인물인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를 패널로 초대해 검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해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박지원 석좌교수는 방송당일 국정원장으로 내정돼 뉴스의 인물이 된 상황이어서 패널의 주가를 높였다. 당일 밝힌 소신이 곧 앞으로 펼쳐질 대북관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멘트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실렸다.

【구성 및 내용】

강경일변도로 나가던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던 역사적 이벤트를 되돌아보면서 평화와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의 시점이 잘 맞았고, 기획의 방향성도 뚜렷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남북관계가 검색된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텃던 박지원 전 특사(장관)를 초대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을 진단했다.

남북관계를 전환시킨 역사적 순간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4.27 판문점 선언,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되돌아보며 남북관계는 긴장과 평화가 공존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했다.

위기의 한반도 상황의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남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것이 곧 파멸의 길을 상생의 길로 바꾸는 솔루션이라고 단언했다. 또, 검색된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내와 상황관리를 통한 대화의 길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마크TV>는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북한에서 효자 역할을 하는 은행나무를 다양하게 다뤄 흡인력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은행을 활용하는 사례가 북한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됐다. 방역과 의료수준이 취약한 북한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쏟는지를 알 수 있었다.

【참고사항】

10:19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정식참가 소식을 다루면서 남북한선수단 동시입장을 전할 때 2000년 시드니올림픽 영상을 사용했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7. 3.	시청률	0.000

【총 평】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위기 대응과 디지털 혁신 행정 비전을 다룬 “긴급재난지원금, 디지털 기반으로 효과 톡톡”을 방송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국내외적으로 칭찬받은 한국 정부, 국민이 믿는 정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국민을 섬기려는 모습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잘 담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또, ‘코로나19’ 경제 침체에 발 빠르게 대처한 정부, 디지털 기반의 행정시스템을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의 행정안전부를 담아내어 정부의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

【구성 및 내용】

지난 4월 30일 정부가 시행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른 중간 점검 및 일부 결과보고 시간을 마련한 기획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한 행정안전부의 보이지 않은 4개월 동안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디지털 기반으로 효과 톡톡”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행정안전부’, 국민 경제 위기의 긴급 상황을 지원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난 4개월의 활동을 담았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엄정한 상황속에서도 국민의 참정권 권리를 위해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한 행안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성공적인 투표로 이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행정안전부가 맡았던 ‘코로나19’대응,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행정안전부 역할과 활동,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과 경제 효과, 위기에 빛을 발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지털 혁신 정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신분증 디지털화 작업과 국민 비서서비스를 소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세계에서 조차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간기업 협력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의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진작과 경제적 효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

코로나19이후 시대는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K-방역의 성공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상세히 전하였다.

또, 각종 필요한 기관의 증명서 서류를 스마트 폰 앱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고, AI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건강검진시기, 세금납부시기, 과태료 납부시기 등을 알려주고 문의하는 국민비서 역할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디지털혁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7. 4.	시청률	0.255

【총 평】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원도 삼척의 여름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 “여름, 바다의 추억”편을 방송했다. 동해바다의 시원한 풍경과 함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동해 삼척바다에서 많이 생산되는 오징어와 문어, 소라, 참게 등의 어촌 풍경은 삶의 희망을 함께 전해주었다.

삼척 바닷가를 배경으로 살아 온 사람들의 여름 바다 이야기는 30년 넘도록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 터줏대감 마을 주민, 고향집에서 창작활동 중인 시인 등을 소개했다. 이들이 살아 온 이야기이자 고향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훈훈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과거 여름 휴가철의 상징이었던 삼척 바닷가를 보여줌으로써 바닷가 사람들의 여름나기를 소탈하게 담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한국의 나폴리라고 부를 만큼 에메랄드 빛 바다와 동해 삼척 바다에서 수확하는 싱싱한 수산물들과 함께 산중 첩첩히 마을을 이루며 사는 삼척의 이야기를 전했다. 삼척항 바닷가 사람들의 소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삶의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었다.

삼척항의 오징어 경매장과 수산 시장을 돌면서 시장 풍경을 소개하고 인근 주민들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바닷가 어촌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벽시장의 수산물 경매시장 사람들의 삶의 풍경소리는 언제 봐도 활기를 주는 모습들이다. 펄쩍 펄쩍 뛰는 수산물의 경매를 통해 사고팔며 자신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순리에 맞게 사는 모습이 언제나 경외심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다.

바닷가 근처 산중의 첩첩이 이룬 마을인 나릿골의 풍경 소리는 삼척 바다의 백미인 부분이다. 나릿골 마을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삼척바다의 풍경은 이탈리아 나폴리를 연상할 만큼 빼어난 풍경과 함께 그 속에서 전해오는 예술적 감성과 마음의 평온은 삼척 바다가 주는 선물이었다.

특히, 나릿골 마을 시인이 시낭송으로 들려준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했던 옛 집에서의 추억을 더듬는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리움이다”라는 감정을 전하였다. 바다라는 자연 배경은 문학적, 예술적 감성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자신의 터전에서 삶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평범함이 비범하게 보여지는 순간들을 전하였다.

삼척의 대표적 산나물 곤드레 나물로 만드는 곤드레 밥과 곤드레 된장국, 곤드레 나물과 전으로 차린 한 밥상을 마을 공동으로 모여서 식사하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과거 여름 휴가철의 상징이었던 삼척 바닷가를 보여줌으로써 바닷가 사람들의 여름나기를 소탈하게 담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프로그램	KTV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7. 5.	시청률	0.081

【총 평】

<역사를 남긴다, 국회의정기록관1부>는 21대 국회가 파행되면서 국회쪽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묵묵히 영구보존자료인 의정사를 꼼꼼하게 기록하느라 분주한 의정기록과 속기사들의 애환과 사명감, 책임감 등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강조해 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상을 알렸다는 점도 긍정적 의미를 더했다. 속기록이 정리되고 완성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큐형식으로 취재한 구성이 몰입도와 직무 이해도를 높였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8박 9일 192시간 토론이 의정기록관 공무원들의 격무로 이어져 입술이 부르튼 사례를 웹툰으로 구성해 보여줘 속기록 공무원들의 노고와 책임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긴박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정확한 기록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의정기록과 사람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역할이 주는 무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속기록이란 것이 단순하게 빠르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최종적인 기록으로 남기까지 이중 삼중의 검토 작업을 거쳐야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점을 밀도 있는 취재를 통해 잘 보여줬다.

국회에서 회의가 벌어지면 속기를 진행하는데 이들의 본격적인 일은 속기 이후이다. 회의록을 문어체 형태로 전환시키는 번문이라는 일이 급하게 이어진다. 본회의 회의록은 제일 중요한 회의록이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청문회일 경우 2시간 내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한 업무가 요구된다. 1995년도 이전에는 손으로 회의를 기록하였다. 선과 점이 조합되어 말이 이뤄지는 수필 속기는 배우는 사람들이 없고 향후 사라질 수도 있어 계승하기 위해 관련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수필속기는 일일이 원고지를 이용하고 그 원고지를 편집 및 확인하여 최종 확인되면 인쇄소로 넘어가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8박 9일간 진행된 일명 필리버스터는 강렬한 기억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24시간 주야로 대기하여 상당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 의정기록과가 제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여야의 대립 속에 4차 본회의 또한 회의 전부터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에 속기사들도 긴장 속에서 속기작업을 준비한다. 대기조도 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회의진행이 확정되며 자리에 함께 한다. 특히,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속기사에게 힘든 작업의 순간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7. 7.	시청률	0.008

【총 평】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는 사회풍속도로 '농촌 작은 학교 인기', '화상면접'을 다룬 소재가 시의성 있고 참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과 구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화상면접'을 다룬 소재 선택이 탁월했다.

또, 춘천의 농촌 지역에 자리 잡은 서상초등학교의 교육 풍경은 등교수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학부모의 눈길을 잡기에 충분했고 경기도 용인의 '공정여행' 이야기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마을을 이어가는 하나의 문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바우처로 악기 배워요'리포트 오프닝에서 아동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연습하는 모습과 사운드가 잘 살아나 흡인력을 높였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안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캠페인 효과가 기대된다.

【구성 및 내용】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농촌의 작은 학교, 마을 주민이 안내하는 공정여행기획가 양성 프로그램, 지자체의 화상면접 지원, 음악 바우처 지원 등이 소개되었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침에 따른 건강한 생활습관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 코로나19 여파...농촌 작은 학교 학생들 몰려
전교생 59명의 춘천 의암호 주변의 서상초등학교는 올해 6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고 인근 도시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도 있다. 작은 농촌학교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마을 구석구석 공정 여행...주민과 함께 떠나요
경기도 용인의 공정여행 마을로에서는 여행지와 향토문화, 마을주민 모두를 위한 공정여행기획가 양성과정이 분기별로 이뤄진다. 이들을 통해 마을로에서 주최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1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 채용과 구직 돕는 '화상 면접' 지자체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이 어려워지자 지자체에서는 화상면접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구직자들을 위해 화상면접장 시설을 마련했다.
- 레슨비 월 2~3만 원...바우처로 악기 배워요
음악바우처는 소득분위에 따라 일부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성북구의 경우 10년 동안 4,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참고사항】

13:44 용어사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음악바우처(13:44)'와 '예체능 바우처(14:30)'가 함께 사용되었고, 지자체 과장은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사업'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7. 7.	시청률	0.013

【총 평】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1년이 주는 의미와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본 수출규제 1년, 기술 국산화 성과와 과제'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방송이었다. '경제&이슈'는 1년 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음을 낱낱이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구성도 설득력 있었다. 우리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 성공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일본의 몰상식을 꼬집은 방송이었고, 탄탄한 기술력에 정부 지원까지 탈일본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담았다.

【구성 및 내용】

한국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 뻔한 문제가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 폭을 좁혀 득이 됐던 1년간의 상황을 전했다. 지난 해 갑작스런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인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적반하장의 일본의 본 모습을 보여 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 안사기, 일본 안가기 등을 벌였고, 정부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필수 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기술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 뻔한 문제가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 폭을 좁혀 득이 됐던 1년간의 상황을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 1년 그간의 경과보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별로 자립 속도를 낸 대일 무역적자 폭을 좁힌 기술 성과와 과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오히려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국산화와 자립화 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평가 등을 알려주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수출규제로 인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으나 정부의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예산 투입과 기술력을 확보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큰 타격보다는 오히려 기술력 향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자립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기때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두는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작년 이맘때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으로 모든 국민이 놀랐고 어이없던 시간을 뒤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지나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시의 적절한 아이템이었다.

S&NEWS의 '응원의 날개를 전하세요, #다시 챌린지 캠페인과 더불어 실패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실패'라는 단어만으로도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당당히 실패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인식개선 및 극복하고자 하는 서로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7. 9.	시청률	0.004

【총 평】

일년 중 물놀이 사고와 연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7월이다. 최근 5년간 7월 사고건수가 4400여 건으로 평상시보다 2배가 많았다. 또한 연안사고도 한 해 700여 건이 발생해 사망자가 1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 41회는 '방심을 미끼삼은 연안사고'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정보를 제공해 시의성, 정체성, 정책홍보성을 살리는 기획이 탁월했다.

【구성 및 내용】

연안과 갯벌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과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바야흐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의적으로 다룰 만한 소재였다고 생각한다. 사고에 대처하는 요령과 필수적인 안전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최근 테트라포드에서의 실족추락사고는 물론 갯벌고립사고, 선착장에서의 차량추락사고 등 연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한다. 연안사고는 선착장, 갯바위, 갯벌 등에서 사람이 실족하거나 고립되는 사고를 말하는데 발생 원인은 안전 수칙 미준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연안사고의 발생이유와 예방, 대응을 알아보았다.

테트라포드 사고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 중 70여건 이상이 테트라포드와 방파제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파도와 해일을 막기 위한 테트라포드는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로 표면이 미끄럽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연속적으로 엉켜있어 실족 시 다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항포구, 방파제에서의 차량 추락사고도 2018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다. 최근 2년간 531건의 추락사고 중 129건이 차량 추락사고였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의 갯벌안전사고로 1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 걸음걸이 속도보다 2~3배 빨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물이 들어올 때 안전한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연안해역의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등의 합동 시설 점검이 시행되었다. 해양경찰은 갯벌체험장 등 주요한 곳에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물때에 맞춰 만조시간대에는 직접 현장관리를 진행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갯벌 고립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유도줄 및 방송장비 등도 적극 활용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했지만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다. 해양경찰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상황을 상정하고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익수자 구조, 갯벌고립자 구조 훈련 등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 및 전문성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